

'벼랑 끝 자영업자' 저축은행 연체율 10%대 육박

개인사업자 비은행권 업권별 연체율 현황



대출자 10명중 6명은 다중채무자... 평균 대출액 4억2000만원 1분기 2금융권 대출 연체율 4.18%...8년9개월만에 최고 기록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연체율이 1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였고,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에 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서구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대출·연체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1.02%포인트(p) 뛰었고,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1년 전인 2023년 1분기(2.54%)보다는 1.64%p나 높다.

2금융권 가운데 세부 업권별 연체율은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 3.21% ▲보험 1.31%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각 2.33%p, 0.93%p, 0.90%p, 0.33%p 올라 2015년 3분기(10.91%), 2014년 2분기(3.75%), 2014년 3분기

(3.56%), 2019년 2분기(1.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8년 6개월, 9년 9개월, 9년 6개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연체율 상승 폭은 4.79%p, 1.44%p, 1.41%p, 0.62%p로 더 커진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1분기 현재 0.54%로 2015년 1분기(0.59%) 이후 9년 내 최고 점을 찍었다. 작년 1분기·4분기보다 각 0.17%p, 0.06%p 더 올랐다.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리며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178만3000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 4분기(57.3%)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752조

8000만원) 가운데 71.3%가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분석했다. 이들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다.

양부남 의원은 "2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을 보면 경제의 싹싹해진 자영업자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은행, 가계대출연체액 782억원...3년 새 3배 급증

지방은행 중 상승폭 가장 커

광주은행을 비롯한 주요 지방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액 및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 중 광주은행의 가계대출연체액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및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지역별 연체액 증가 현상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의 연체율 증가세가 급격한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광주·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주요 6개

지방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494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주요 지방은행 중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액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액은 지난 3월 기준 782억원으로, 지난 2021년 3월(241억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및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난 전년 동월(539억원)에 비해서도 200억원 이상 많았다.

광주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지난 3월 말 기

준 0.93%를 기록해 3년 전(0.27%)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두번째로 증가폭이 컸던 전북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연체액은 3년 새 495억원에서 1424억원으로, 연체율은 0.82%에서 2.18%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가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지방은행들이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가계대출 연체액이 불어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장성 농공단지 등 4곳 중기 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우위니아 피해 기업 등 지원

대우위니아 협력업체가 밀집한 장성 농공단지 등 4개 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제·지방세가 감면되고 수의계약도 가능해지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장성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와 월평준공업지역 등 4곳을 지정했다.

중기부는 ▲밀집지역 지표(매출액·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역산업 지표(산업집적도·산업생산실적) ▲지역경기 지표(사업장 수·공장등록 현황) 등을 기준으로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 등을 심의해 해당 지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대우위니아 17개 협력업체가 밀

집해 있으며 지난해 대우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57억 6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제·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고 중기부의 지원사업 평가에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우위니아 협력업체가 밀집한 장성의 4개 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튜닝산업 동향 파악·선도기업 육성 나서

튜닝산업 역량강화 세미나

미래 사업 트렌드 등 공유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가 전남도 튜닝 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4단계)을 통해 튜닝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담양 드림드호텔에서 튜닝산업 연관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규섭 국립경상대 교수가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발전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미래자동차 연결, 공유, 자율주행, 전동화 기술의 융합) ▲전기자동차 산업 현안 ▲xEV 분류 및 구동시스템 트렌드 등을 설명했다.

이어 최명호 회계법인법인 공인회계사는 '정부 보조금 정산관련 회계교육'과 백정환 전남지역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연구유리 정의, 사회적 책임, 연구노트 작성법'을 주제로 각각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익현 전남TP 원장은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형자동차 기술, 이동수단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신규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라며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마련과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아갈 선도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63.51 (-31.95)
↓ 코스닥	809.96 (-18.76)
↓ 금리 (국고채 3년)	3.071 (-0.003)
↑ 환율 (USD)	1388.35 (+1.65)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 기아 오토랜드 방문

생산현장 답사·의견 청취

통관 행정 등 다각적 지원 약속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이 22일 광주의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기아가 최근 해외 수출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의 선진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등 판매 호조로 이어갈 수 있도록 통관 행정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해 73억 달러, 올 상반기 39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누계 28만여대를 생산해 65.7%인 18만5000대를 수출하는 등 전년도 상반기 실



적을 뛰어넘었다. 지난해는 54만대를 생산해 35만대를 수출했다. 현재 스포티지, 셀토스, 쏘울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기아 전체 생산량의 33.7%, 수출은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